

칼빈의 예배신학

김 영 한*

머리말

루터에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해방과 확신이었고 예배는 인간의 감사스런 반응이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사랑하는 신뢰였다. 이에 반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위엄과 타자성과 신 앞에서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했다.

1) 칼빈의 예배(Worship)론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회중을 위한 예배론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당시 개혁주의 운동의 지도자로서 개혁주의 공동체를 가르쳐야만 했다.

예배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그의 예배의식(liturgy) 서문과 [기독교강요](Institutio)에 나타나 있다.

첫째, 예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배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그와의 만남이다. 칼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생각을 부인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¹⁾

모든 참된 예배는 인간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현현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칼빈이 강조하는 예배의 특징이란 삶의 유일한 실재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준엄한 인정이다.²⁾

예배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에 가득찬 신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 본교 인문대학 교수, 교목

1) Institutio, III, xx. 8.

2) Evelyn Underhill, Worship, Crossroad, New York, 1989, p.288

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므로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³⁾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으며 “진노와 심판과 공포”만이 남아 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에게 대한 인격적인 헌신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칼빈에게서 예배는 신자의 인격적인 모든 것이 집중되는 행위이다. 그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인격적인 요소가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와 구속과 섭리를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통합되는 행위이다.

둘째, 예배는 외경을 동반하는 헌신이며 거기에는 감정이 수반된다.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정서적인 요소를 부인하지 않았다. 예배는 전인격적인 행위(a total personal act)이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a good affection)은 메마르고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감동을 받고 이해가 일깨워졌을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생한 움직임이다”.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인격적인 헌신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 “성스러운 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임재에 접할 때 가장 위대한 경악을 느끼게 된다”.⁵⁾

예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동반된다. 예배에는 기도와 더불어 말씀의 선포와 회개와 찬양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

칼빈은 기도와 관련하여 언급하기를 첫째, “자기의 모든 힘과 관심을 기울려야 하고”, 둘째, “절실히 또한 열렬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하고, 셋째, “자기 공로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넷째, “겸손으로” “구한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입술만의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 하신다”고 하였다.⁷⁾

3) *Institutio*, III, xx. 17.

4) Joannis Calivini, *Opera Selecta*, Petrus Barth, Guilemus Baum, and Dora Scheuner, eds. (Muenchen:Chr. Kaiser, 1952), 2:15.

5) *Institutio*, III. xx. 8.

6) *Institutio*, III. xx. 4-11.

7) *Institutio*, III. xx. 33.

셋째, 예배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올바르야 한다. 따라서 예배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통전성(integrity)을 가져야 한다. 모든 예배행위는 성경과 신학에 부합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생활의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배에 있어서 감정과 정서와 미학과 미는 모두 신학적 건전성에 종속되어야 한다.⁸⁾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중세교회의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의식에 대한 是正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중세교회의 의식과 제도와 예배를 철저히 비판했다.

칼빈은 “너는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적용하여 교회당에 걸여놓은 미술품과 조각상을 제거하였다. 성인들의 조각상은 이것을 성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예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덕성함양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일로 간주하였다.

칼빈은 예컨대 예배시간과 장소 등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며 부수적인 문제들로서 선택의 사항이다. 성만찬에 있어서 포도주의 색깔이나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하는 자세와 같은 사항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선택해야 할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칼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하여 뚜렷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규칙이 구원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므로 강력한 주장을 하시지 않았다. 또 규칙이란 각 시대와 민족의 양식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교회의 계발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회의 유익이 요구하는 데 따라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제정하여야 한다.”⁹⁾

네째, 예배는 신학적으로 이해가능하여야 한다.

예배는 회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드러져야 한다. 예배의 순서와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고백과 말씀의 선포와 광고도 회중의 언어로 집행되어야 한다.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도 선포자의 학식을 앞세워서 안된다.¹⁰⁾ 설교도 그 내용이 모든 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찬양에 있어서 멜로디는 의미를 모호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¹⁾

8)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John Knox Press, 1978, 175.

9) Calvin, Institutio, IV. x. 30.

10) Calvin, Commentary on Corinthians, 1 Cor. 2, 3-7.

11) Opera Selecta 2:16-17, Institutio, III. xx. 32.

기도도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덕이 되도록 회중의 언어로 해야 한다. “공중기도는 여태 까지 해온 관습대로 라틴어를 쓰는 회중 가운데 회랍어나, 또는 프랑스나 영어를 쓰는 회중 가운데 라틴어가 아니라 회중의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회중들이 공중기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중기도나 개인기도에서나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방언이 말하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한에 있어서 마음은 사상의 열정으로 채워져야 한다”.¹²⁾

성례전의 집행에 있어서도 교육과 말씀선포가 더불어 시행됨으로서 성례전 행위가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¹³⁾ 칼빈은 첫번째의 성찬식 집행 전에 교리문답 교육을 먼저 실시하였다. 회중이 예배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중의 교육이 필요하다.¹⁴⁾

칼빈은 회중이 성경강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인문교육을 통하여 세상에서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교육을 실시하였다.¹⁵⁾

예배나 성례전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불필요한 동작, 행위 혹은 언어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며 예배 때의 언어, 행위와 도구들은 그것들이 전달하려는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교회당 벽에 어떤 색깔을 칠하거나 장식하기를 금했고 오로지 십계명판만을 수록하는 것을 허락했다. 어떤 의식적 행위나 몸짓을 허용하지 않았다.¹⁶⁾ 찬양대를 금했고 오르간이나 정교한 악기들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이러한 악기들은 메시지를 모호하기 만들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따라서 “인간의 노래와 새의 노래를 구분한다”.¹⁷⁾ 인간의 노래는 이해하면서 부르나 “피리새, 나이팅게일이나 앵무새 등 새들은 노래를 잘하나 이해없이 부르는 것이다”. 새의 노래는 아름다우나 영적 감동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노래에는 영적 감동이 있다. “영적인 노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불리울 수 있다. 마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은사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되어야 마음과 감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¹⁸⁾

12) Institutio, III. xx. 33.

13) Institutio, IV. xiv. 3-4.

14) John H. Leith, op. cit., p.176.

15) Institutio, I. v. 2.

16) Evelyn Underhill, Worship, Crossroad, New York, 1989, p.287.

17) John H. Leith, op. cit., 177.

18) Joannis Calvinii, Opera Selecta, 2:17.

다섯째, 예배는 덕성함양(edification)이어야 한다.

칼빈은 예배의식의 형식과 순서는 “전적으로 덕성함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덕성함양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은 교회내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¹⁹⁾

덕성함양의 기준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및 충성과 이웃사랑 등이 증대되는가 하는 여부이다.²⁰⁾ 신자들의 덕성함양을 위하여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되고 무게있고 자중해야 한다. 칼빈은 식탁이나 가정에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사용하는 음악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음악 사이에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칼빈의 예배의식서(1545년)에는 찬송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회음악을 시편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시편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정직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했다.

여섯째, 예배는 단순해야 한다. 칼빈이 주장하는 예배의 단순성은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화려하고 번잡하고 과장된 예배의식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다.

칼빈은 세례식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제도에 인위적으로 첨가시키는 모든 시도는 교회에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칼빈은 “눈을 부시게 하고 단순한 자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모든 연극적인 허식을 버릴”것을 강조한다.²¹⁾ 과장된 허식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때는 교회의 전 신도가 기도하는 중에 신도들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봉헌하며 배운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끝으로 기도와 감사로써” 끝내는 것이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적이라고 말한다.²²⁾ 칼빈은 세례와 성찬식이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것 처럼 “외부적 부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것처럼 “복잡한儀式으로써 복음의 단순성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²³⁾

성만찬의 거행에 있어서도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화려한 것들”과 “생명력이 없고 연극 같은 잡동사니들”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들은 신자들의 지각을 기만하여 마비시킬 뿐이다.²⁴⁾

19)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John H. Leith, *ibid.*

20) John H. Leith, *Ibid.*

21) *Institutio*, IV. xv. 19.

22) *Institutio*, IV. xv. 19.

23) *Institutio*, IV. x. 16

24) *Institutio*, IV. xvii. 43.

성례전의 집행도 “수는 적게하고 시행하기에 간편하고 위엄을 드러내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위엄에는 명료성도 포함된다.”²⁵⁾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자들 중 유능한 음악가였으나 교회예배에 음악을 제거하였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음악의 사용을 조심스레 허용하였다. 그 이유는 칼빈이 인간 존재를 감동시키는 음악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의식의 노래는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되고 무게있고 장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칼빈의 예배의식론

칼빈의 예배의식(liturgy)은 스트라스부르그의 종교개혁자들이 시도한 중세 로마카톨릭 교회의 미사의식(the service of Mass)의 수정에서 발전했다. 칼빈은 예배의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시의 미사의 대폭 간소화하고 말씀과 성례전만 초점을 두었던 초대교회의 의식관행에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나 고대교회의 형태중 그 어느 하나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 정신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하나의 표준적인 예배모범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세의 미사를 수정하는데 있어서부터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들을 따라서 칼빈은 예배에는 설교와 성만찬과 세례의 성례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칼빈은 예배의식은 부처(Martin Bucer)가 사용하던 禮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만들어 졌다.²⁶⁾ 우리는 칼빈의 예배의식의 특징을 다음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예배의식의 중심은 말씀의 선포이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예배중심을 미사로 드린 것을 개혁하면서 칼빈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의 선포인 설교여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예배의식에 있어서 말씀의 선포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종교개혁자이다.

설교란 바로 성경에 대한 주석(a commentary on scripture)이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칼빈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입”(the mouth of God)이라고 말했다.²⁷⁾

따라서 예배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말씀이 선포되고 신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다.²⁸⁾

칼빈은 성례전의 집행에 있어서도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신앙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할 것을

25) Institutio, IV. x. 14.

26) 정장복, “예배의식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 성경과 신학 제 6권, 1988, 41쪽.

27) Opera Selecta, 2: 16-17.

28)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1), p.191.

강조했다.²⁹⁾ 그러므로 니콜스(James Hastings Nichols)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종교개혁은 위대한 말씀선포의 부흥이었으며, 아마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을 것이다.”³⁰⁾

둘째, 모든 인위적인 의식을 제거하고 가시적인 표식을 제거했다.

칼빈은 예배의식에 있어서 제 2계명을 주주시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시적인 형상을 제거했다.

칼빈은 중세적인 모든 예배의식을 부정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신성을 포괄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칼빈은 중세교회의 모든 가시적인 의례를 폐기하고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 그리고 “다락방의 예전”(Liturgy of the Upper Room)을 주장했다. 이것은 1542년 그가 “초대교회 관습에 따른 것”(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Ancient Church)이라고 기술한 교회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났다.³¹⁾

셋째, 하나의 예배순서나 하나의 예배모범을 고집하지 않았다.³²⁾

칼빈은 예배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권위있는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예배의식에 변형을 용인하였다. 칼빈은 예배의식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고안해 내지 않았고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행해오던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식에 맞추었다. 칼빈 자신은 성만찬이 매주일 시행되기를 바랐으나 스트라스부르그나 제네바에서 이따금씩 시행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종교개혁자인 파렐(Farel)은 예배순서에 있어서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죄의 고백을 설교와 율법 다음에 놓았다.

칼빈도 예배순서에 십계명을 포함시키되 죄의 고백과 확신 다음에 위치시킨다.³³⁾ 그 이유는

첫째, 신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율법과 관련을 가짐으로써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예배의식에 있어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의 고백이 죄사함(absolution)과 화해의 희망을 주는 약속과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새로운 회심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두려워 했으므로 제네바의 예배의식에는 죄의 고백

29) James Hastings Nichols, Corpo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68), pp.29-33.

30) Nichols, op. cit., p.29.

31) Evelyn Underhill, Worship, Crossroad, New York, 1989, p.289.

32) John H. Leith, op. cit., p.182.

33) John H. Leith, op. cit., p.184.

(confession)을 제외시켰다.³⁴⁾

칼빈은 예배형식이란 불변하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제반여건과 관습에 적응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였다. 칼빈은 잉글랜드의 서머셋(Somerset)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배시의 촛불 사용을 자신은 반대하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여부 때문에 지나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권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주 명상함으로써 순종하고 순종 속에서 강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길에서 돌아오는 율법의 유익을 사용하고자 한다.”³⁵⁾

“우리는 지나친 열심이나 까다로움 때문에 교회의 연합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의식에서 서로 양보하고 신앙고백에 어떤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³⁶⁾

네째, 대중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회중찬송을 도입했다. 칼빈은 중세풍의 성가대를 없애고 회중찬양을 도입했다. 대중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감격은 종교개혁의 크나큰 공헌이었다.

칼빈은 음악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로써 언어의 이해가능성과 능력에 기여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시편을 노래로 예배에 도입했다. 시편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다.³⁷⁾

1539년 칼빈은 몇몇 시편(psalms)을 번역하여 최초의 찬송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시편 19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편 찬송집(Psalter)은 1562년에 와서 베자(Theodore Beza)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이 시편 찬송집은 개혁교회의 경건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편은 예배의식에 있어서 신자들의 기도였다. 칼빈은 다음같이 말한다. “찬양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적합한 정도로 열정적이면 그것은 거룩한 행위에 위엄과 은혜를 더하며 우리 마음 속에 기도하는 열성과 간절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³⁸⁾ 시편 찬송(psalm-singing)은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케 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34) CR 10:213, John H. Leith, op. cit. 182-3.

35) Institutio, II. vii. 12.

36) Letter of John Calvin, 2: 182-198 (Letter to Somerset, October 22, 1548), John H. Leith, op. cit. p.183.

37) Opera Selecta, 2: 17, John H. Leith, op. cit. p.177.

38) Institutio, III. xx. 31-32.

시편 68편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를 흠어시며...”는 신앙의 박해 속에서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Huguenot)의 애창가였고 시편 118편 “이 날은 기쁜 날”은 위태로운 전쟁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그노와 칼빈주의자들 노래한 신앙의 표현이었다.³⁹⁾ 이 시편 찬송집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다섯째, 말씀이 선포되는 성례전을 강조했다.

칼빈은 중세 교회의 미사예배를 개혁하면서 세례와 성만찬과 말씀선포를 포함하는 예배를 원했다. 당시 중세교회가 성만찬을 일년에 단 한번 부활절에 거행하는 것을 칼빈은 폐기하였다.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근거하여 “말씀, 기도, 성만찬, 구제헌금이 빠진 교회의 집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성만찬(the Eucharist)은 “될 수 있는대로 자주 가지는 것이 적당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그러나 칼빈은 그의 주장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성만찬은 처음에는 매월 행해지다가 다음에는 해마다 4번씩 거행되었다.

칼빈은 성례전이 빠진 말씀예배에는 동의하였으나 설교와 가르침 형태의 말씀이 없는 성례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교와 가르침 형식의 말씀은 중세교회의 화체설로 꾸며진 미사의 불건전한 신비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배와 성례전의 이해가능성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었다. 칼빈은 예배의 인격적이며 책임적이며 결단적인 성격을 회피하는 중세교회의 미사가 동반하는 미술에 대항하기 위하여 말씀의 선포를 강조했던 것이다.⁴²⁾

칼빈은 다음같이 성례전과 말씀선포와의 관계를 말한다. “영적인 일들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세가지를 인식한다. 먼저, 주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 둘째, 주님은 그것을 성례전으로 확증하신다. 셋째로, 주님은 그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여신다.”⁴³⁾

39) John H. Leith, op. cit., pp.185-186.

40) Institutio, IV. xvii. 44.

41) Institutio, IV. xvii. 43.

42) John H. Leith, op. cit., pp.187-8.

43) Institutio, IV. xiv. 8.

3. 칼빈 예배신학의 현대적 의미

1)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이 없는 성례전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보았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경청이요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의 경험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말씀의 선포 속에서 경험된다. 하나님의 부재의 현대 속에서 진정한 말씀을 선포를 통한 예배는 살아 있는 하나님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것이 된다.

2) 성만찬의 강조

전혀 성례전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칼빈은 성만찬은 자주 거행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한주일에 한 번씩 거행하는 것을 장려했다. 성만찬이 결여되거나 세례식이 부재한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자주 거행함으로써 이 지상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 현존의 몸으로써 진시로 그의 성전이 된다.

3) 성령의 예배

성례전의 유효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떡과 포도주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현존의 계기가 되며 신자와 부활한 주님 사이에 교제를 위한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뢰와 대망이 결여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과 공허한 행사가 되어 버린다. 교회는 예배에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

4) 친근한 예배

칼빈은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크게 강조하면서 예배에 있어서 친근하고 아이같은 성향이 결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유교적인 형식적인 딱딱한 예배분위기로 나타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요청된다.

맺음말

칼빈은 예배를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성에 대한 경배로 보았다. 예배의식은 그에 대한 인격적인 다가감이고 거기에는 말씀과 성례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인위적인 치장을 벗어 버리는 것이요 예배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전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발성이요 경건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칼빈의 예배신학은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조 속에서 그 영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교회를 향하여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a New Model for College Chapel

Chaplain Office

The worship of God is the most important act in the Christian faith. The act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worship service must be the center of the Christian life as praise to the Savior and the Creator of this world.

It will not be easy to adhere their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act of the worship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 of the Christian college. Since we feel that the situation of the chapel of the Christian college in Korea is pitiful, this book seize the essence of the meaning of the act of the worship and the chapel through the approach to the Christian worship, the biblical theology and the systematic theology.

And we also are seeking to show a direction for the future chapel and especially base on the situation of Soong sil university and the model of the chapel.